Bomarzo, Op. 34

- □□

정보

Alberto Ginastera: Bomarzo, Op. 34
작곡가: Alberto Ginastera (1916–1983)
작품명: Bomarzo, Op. 34
장르: 스페인어 2막 오페라
대본: Manuel Mujica Laínez, 자신의 1962년 소설에 기초
작곡 시기: 1966–1967년
초연: 1967년 5월 19일, Washington D.C. Lisner Auditorium, Opera Society of Washington,
Julius Rudel 지휘, Tito Capobianco 연출
초연 주역: Salvador Novoa(Pier Francesco Orsini)
출판: Boosey & Hawke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omarzo_(opera)

Alberto Ginastera의 Bomarzo는 16세기 이탈리아의 기형적인 귀족 Pier Francesco Orsini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환각처럼 되짚는 스페인어 오페라다. Manuel Mujica Laínez가 자신의 소설을 대본으로 옮겼고, Ginastera는 1966–1967년에 이를 2막 15장으로 작곡했다. 약 2시간 40분에 이르는 음악 속에서 불멸의 약, 가족의 폭력, 사랑과 질투, 괴물 조각 정원이 한 사람의 기억과 공포를 되풀이해 비춘다.

개요
막이 오르면 보마르초 공작은 점성술사 Silvio de Narni가 불멸을 준다고 말한 물약을 마신다. 그러나 약은 독이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오페라는 현재의 방과 과거의 환영 사이를 오간다. 관객은 공작의 삶을 연대기처럼 따라가기보다 , 그가 마지막 순간에 되살리는 장면들을 통해 왜 욕망과 공포가 그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보게 된다.

작품의 역사적 출발점은 로마 북쪽 보마르초에 남아 있는 ‘괴물의 공원 ’이다. 16세기 실존 인물 Pier Francesco Orsini가 만든 기괴한 석상은 Mujica Laínez의 소설을 거쳐 오페라의 무대 장치와 심리적
상징으로 바뀌었다. 석상은 장식적인 배경이 아니라, 공작이 숨기려 했던 수치와 욕망이 돌로 굳은 듯한 풍경이다.

Ginastera는 이 이야기를 과거의 기이한 인물에 관한 전설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Bomarzo를 “우리 시대의 인간 ”에 관한 작품으로 설명했다. 성과 폭력,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불안이 르네상스의 의상 아래에서도

현대인의 문제로 남는다는 뜻이다. TIME의 초연 평론이 작품을 ‘고문받는 영혼의 악몽 ’으로 묘사한 것도 이 회상 구조와 연결된다.

창작 배경과 초연

Opera Society of Washington의 Hobart Spalding이 작품을 위촉했고, Ginastera는 Spalding 부부에게
오페라를 헌정했다. 세계초연은 1967년 5월 19일 Washington D.C.의 Lisner Auditorium에서 열렸다. Julius Rudel이 지휘하고 Tito Capobianco가 연출했으며 , 멕시코 테너 Salvador Novoa가 공작을 맡았다. 같은 제작진과 출연진의 초연 녹음이 그해 6월 Constitution Hall에서 만들어져 작품의 첫 무대와 초기 음향을 함께 남겼다.

초연 뒤 작품은 곧 뉴욕으로 옮겨 갔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 예정된 첫 공연은 1967년 8월 4일 Teatro Colón 에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성적 내용과 폭력, 환각을 문제 삼아 공연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관객은 1972년에야 Buenos Aires에서 작품을 들을 수 있었고, 이 공연은 Antonio Tauriello의 지휘와 Capobianco의 연출로 이루어졌다 . 세계초연과 현지 초연의 간격은 작품의 무대사가 음악 자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소요 시간과 장면 구성

Boosey & Hawkes와 IRCAM은 전곡을 약 160분, 곧 2시간 40분으로 안내한다. 1967년 초연 녹음의 트랙 합계는 2시간 20분 51초로 표시되는데 , 이는 특정 공연과 음반 편집의 시간이다. 두 값을 나란히 두면 작품 안내의 공연 규모와 실제 녹음의 템포 ·편집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오페라는 프롤로그에 이어 1막 여덟 장면, 2막 일곱 장면으로 이어진다. 장면 사이의 Interludium 은 무대가 바뀌는 동안 관현악이 심리적 연결을 담당하게 한다. 각 장면은 독립된 번호를 갖지만, 공작의 현재와 회상이 계속 겹치므로 막이 진행될수록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죽음으로 되돌아오는 원형이 선명해진다 .

주요 인물과 극의 틀

Pier Francesco Orsini: 테너. 보마르초 공작이며, 신체적 기형과 가족의 모욕, 성적 좌절, 죽음에
대한 집착을 한 몸에 지닌 주인공이다 .
Silvio de Narni: 바리톤. 불멸의 약을 약속하는 점성술사다 .
Gian Corrado Orsini: 베이스. 공작의 아버지로, 어린 아들에게 공포와 수치를 심는다. Girolamo와 Maerbale: 바리톤. 공작의 형제들이다 . 한 사람의 죽음과 다른 한 사람을 향한
질투가 공작의 삶을 꺾는다.
Nicolas Orsini: 콘트랄토 또는 테너. 마지막 독약에 관여하는 조카다.
Julia Farnese: 소프라노. 공작의 아내로, 결혼 뒤 공작의 의심과 무력감이 집중되는 인물이다. Pantasilea: 메조소프라노 . 피렌체의 창부로, 공작이 욕망과 자기혐오를 동시에 마주하는 장면을 이끈다.
Diana Orsini: 콘트랄토. 가족의 과거를 증언하는 할머니다.

어린이의 목소리, 합창, 해골 무용수, 대사가 없는 노예 Abul의 마임도 극의 일부다. 특히 Abul은 공작의 명령이 말에서 실제 폭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몸짓으로 보여 준다. 인물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여러 장면은 공작의 기억이 되풀이되는 방식으로 묶인다.

줄거리와 회상 구조

1막: 공포가 만들어 낸 공작

프롤로그와 첫 장면에서 공작은 물약을 마시고 죽음을 예감한다. 이어 어린 시절의 장면이 펼쳐진다. 아버지는 기형적인 몸을 가진 아이를 해골이 춤추는 방으로 데려가 위협하고, 형제들은 그를 조롱한다. 이러한 모욕은 공작이 훗날 권력을 손에 넣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몸을 숨기는 대신 공포를 외부의 풍경으로 만들게 된다.

점성술과 불길한 징조가 이어진 뒤, 젊은 Pier Francesco는 피렌체의 Pantasilea를 찾아간다. 거울이 놓인 방에서 그는 유혹보다 자신의 뒤틀린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 TIME이 초연 직후 요약했듯 이 장면은 욕망과 자기혐오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세계를 만든다. Pantasilea의 노래와 관현악의 날카로운 움직임은 사랑의
장면을 편안한 서정으로 열어 주지 않는다.

아버지의 죽음과 형 Girolamo의 죽음 뒤에 Pier Francesco는 공작이 된다. 즉위 의식과 축제, Lorenzo Lotto 의 초상화가 이어지지만 권력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그가 새 지위를 얻는 과정은 해방의
결말이 아니라, 과거의 공포를 더 큰 무대에 옮겨 놓는 일에 가깝다.

2막: 욕망, 질투, 독약

공작은 Julia Farnese와 결혼한다. 결혼식의 의식과 침실 장면은 서로 다른 정서를 보이지만, 공작은 아내가
동생 Maerbale를 사랑한다고 의심한다. 성적 무력감과 불신은 부부 사이의 대화보다 관현악의 불안한 움직임 속에서 더 강하게 느껴진다. 공작은 노예 Abul에게 Maerbale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질투는 마침내 몸을 움직이는 폭력이 된다.

이후 공작은 에로스의 정원과 미노타우로스의 환영을 마주한다. 미노타우로스는 괴물 정원의 조각처럼 보이지만, 공작 자신과 형제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내면의 거울이기도 하다.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석상이 같은 공간에 놓이면서, 공작이 만든 정원은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인 동시에 기억에 갇히는 미로가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Silvio는 다시 불멸의 약을 준비하고, Nicolas는 그 약에 독을 넣는다. 공작이 물약을 마신 뒤 처음의 죽음 장면이 되돌아오고 , 그는 괴물의 입을 닮은 조각과 마주한 채 쓰러진다. Presto Music의 초연
녹음 트랙은 마지막을 Death of Pier Francesco 와 The Eternity of Bomarzo 로 나눈다. 죽음 뒤에 남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작이 만든 돌의 세계와 그 안에 굳어 버린 기억이다.

음악 언어와 무대의 심리

불협화음의 표면

Ginastera는 이 오페라에서 후기의 신표현주의 어법을 펼친다. 12음적 조직, 사분음, 비동기적으로 겹치는 반복, 통제된 우연성에 가까운 질감이 성악과 관현악에 결합한다. 이 기법들이 하나의 규칙으로 곡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무대의 불안이 높아질수록 음정과 시간의 중심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여러 수단이라고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잘 설명한다.

동시대 TIME 평론은 음악을 ‘톱날처럼 거친 불협화음 ’으로 들었다. 두꺼운 음군이 쌓인 뒤 짧고 찌르는 화음이 끼어들고, 가수와 오케스트라는 박이 완전히 맞지 않는 부유하는 질감을 만든다. 평론이 Ginastera의 표현을 빌려 부른 ‘clouds’는 특정 악기의 고정된 음색이 아니라, 선명한 선율이 잠시 녹아드는 음향 상태를 가리킨다.

특수 주법과 고악기 색채

현악 주자는 때때로 활로 악기를 두드리고, 금관 주자는 음정 없는 숨을 불며, 목관은 음을 굽혀 사분음에
가까운 날카로운 흔들림을 만든다. 이 효과들은 괴물이나 환영을 흉내 내는 장식이 아니다. 인물의 말과 몸, 기억의 시간 자체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소리로 드러낸다.

하프시코드와 만돌린, 하프, 비올라 다모레, 비올라 다 감바 같은 악기는 르네상스라는 시대 배경을 환기한다. 그러나 옛 악기의 소리가 과거의 평온을 복원하지는 않는다. 피아노와 첼레스타, 세밀한 타악기군, 현대
관현악의 음군 사이에 놓인 고악기 색채는 과거와 현재가 한 무대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들려준다.

성악과 합창

공작의 성악선은 전통적인 영웅 테너의 빛나는 자기 확신과 거리가 있다. 그의 독백은 약함과 통증을 드러내며, 합창과 관현악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음향 속에서도 완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다. 합창은 군중의 배경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고, 공작의 불안을 둘러싸며, 때로는 말 대신 숨소리와 중얼거림으로
장면의 감각을 바꾼다.

초연 당시 TIME은 24성부 합창이 여러 언어로 ‘사랑 ’을 중얼거리거나 한숨과 신음으로 장면을 덧칠한다고 기록했다. 이런 합창은 줄거리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 공작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공간 전체에 퍼뜨린다. 무대 위 인물 한 사람의 불안이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질감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괴물 정원과 제목의 의미
보마르초의 괴물 조각은 오페라의 마지막에만 등장하는 배경이 아니다. 공작은 가족에게 받은 모욕과 자신의 욕망을 외부의 형상으로 고정하려 하고, 정원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다 . 거울, 해골, 미노타우로스 , 석상은 서로 다른 장면의 소품처럼 보이지만, 공작이 자기 자신을 여러 모습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제목의 지명은 역사적 장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심리의 공간을 뜻한다. Bomarzo는 한 사람의 사적인 기억이 거대한 정원과 오페라 무대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마지막에 공작이 죽어도 정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돌의 괴물들은 그의 생애를 해석해 주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상처를 계속 바라보게 만든다.

논란과 수용
워싱턴 초연은 작품의 무대적 대담함과 음악적 힘으로 주목받았지만 , 아르헨티나 공연 금지는 Bomarzo를 예술 작품인 동시에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 1967년 예정된 Teatro Colón 공연은 성 ·폭력 ·환각을
다룬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 금지 기간 동안 작품의 명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1972년 Buenos Aires 공연은 이 공백을 메웠지만, 초연이 고국에서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작품의 수용사에 오래 남았다.

Ginastera의 오페라가 관객에게 편안한 감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장면을 충격의 목록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다. 성적 불안과 폭력은 공작의 심리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괴물 정원과 환각은 그 심리가 만든 무대 언어다. 작품의 어두움은 자극을 위한 표면보다, 자기혐오와 권력욕이 서로를 강화하는 과정을 오래 응시하는 데서 나온다.

주요 레코딩
Julius Rudel / Opera Society of Washington, 초연 관련 녹음 (1967, Sony
889853508822 재발매): Salvador Novoa, Isabel Penagos, Joanna Simon, Claramae
Turner 등이 참여한 스페인어 전곡 녹음이다. Presto Music과 AllMusic은 전체 길이를 2시간 20분 51초로 제시하며, AllMusic은 1967년 6월 3–5일 Constitution Hall 녹음을 기록한다. 세계초연
직후의 출연진과 지휘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Karl-Heinz Steffens / Deutsche Staatsphilharmonie Rheinland-Pfalz, Bomarzo Suite, Op. 34a (Capriccio C5244, 2015): 전곡이 아니라 오페라에서 뽑은 34분 32초의 관현악 모음곡이다 . 성악과 장면의 연속성을 따라가는 대신, Ginastera가 음군과 특수한 음색으로 불안과 환영을 만드는 방식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Andrew Clements는 이 음반이 Ginastera의
서로 다른 창작 시기를 함께 보여 준다고 평했다.
Antonio Tauriello 지휘의 1972년 Teatro Colón 공연: 아르헨티나에서 금지 뒤 열린 현지
초연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다. 당시 공연에는 Washington 초연 제작진 일부가 다시 참여했다. 보존된 영상이나 음원을 접할 때는 Rudel의 세계초연 녹음과 같은 음반으로 취급하지
말고, 작품이 고국에서 받아들여진 순간의 기록으로 구분하는 편이 좋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Bomarzo: 대본, 역할, 2막 15장, 초연, 줄거리, 편성.

IRCAM, Bomarzo: 작곡 연대, 위촉 ·헌정, Lisner Auditorium 초연, 작품 시간과 편성.

IRCAM, Ginastera 작품 경로: Ginastera의 ‘우리 시대의 인간 ’ 설명과 아르헨티나 금지 ·1972년 공연.

Boosey & Hawkes, Ginastera 카탈로그 PDF: 오페라 위촉, 초연, 아르헨티나 공연 지연.

Boosey QNotes: 환각적 회상 구조와 줄거리 개요.
Opera America, “Back Stories V”: Opera Society of Washington과 세계초연의 역사. TIME, “New Works: In a Gloomy Garden”: 1967년 초연 직후의 줄거리 ·음향 ·공연 평론. The New York Times, 1967년 세계초연 보도: 초연 장소와 동시대 작품 설명.
Presto Music, Sony 88985350882: 초연 관련 전곡 녹음의 트랙 구성과 시간.
AllMusic, Julius Rudel 음반 정보: 1967년 녹음일 ·장소와 재발매 메타데이터 .
Naxos, Capriccio C5244: Steffens의 Bomarzo Suite, Op. 34a와 34분 32초 트랙. Alternativa Teatral, 1972년 Bomarzo: Teatro Colón 현지 초연의 지휘 ·연출 ·무대미술 기록.